

<http://dx.doi.org/10.17703/JCCT.2015.1.1.15>

JCCT 2015-2-2

국내 여대생들의 성경험 예측 요인 분석

Analysis of sexual related predicting factors for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김정애*

Jungae Kim*

요 약

본 연구는 국내 여대생들의 성경험 실태를 파악하고 성경험 예측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횡단면 기술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서울, 충청도, 강원도 소재의 총 6개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들 중 320명을 편의 표본추출방법으로 선정하였으며 Y 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299명의 학생들을 조사에 포함시켰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299명의 학생들이 조사에 포함되었는데, 이들 중 60.2%의 여대생들이 성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성경험 예측 분석 결과, 성경험이 있는 친구를 가진 학생들, 흡연 학생들,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하게 성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여대생들을 위한 성교육은 금연 프로그램을 포함한 흡연 학생들과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대생들의 정서에 맞는 맞춤형 성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며, 원하지 않는 성경험으로 인한 위기 상황으로부터 여대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모든 교직원들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주요어 : 여대생 성경험, 성경험 예측요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exual related predicting factors for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The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design was used. We selected 320 students from 6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Chungchung-do and Gangwon-do by convenience random sampling and received IRB from Y Univ. 299 student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using logistic regression. Among 299 students, 60.2% of students reported to have sexual experience. The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ed factors to sexual experience revealed that the students who were having friends who had sexual experience, smokers and those who were high grade, had significantly more sexual experie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re should be an intensive and female tailed sexual related program development for the University students, especially for smokers and including smoking cessation program. And the school health services of University combined general staff working should be strengthened to protect the University students from the critical situation caused by unwanted sexual experience.

Key Words : Female University Students' Sexual Experience, Sexual Related Factors

*정회원, 가톨릭상지대학교 간호학과(교신저자)
접수일자: 2014년 8월 10일, 수정완료일자: 2014년 12월 19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1월 20일

Received: 10 August 2014 / Revised: 19 December 2014

Accepted: 20 January 2015

*Corresponding Author: jjosha6615@naver.com

Dept.: Nursing Dept. Catholic Sangji College, Andong, Gyungbuk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개인차는 있으나 사회·경제적으로는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신체적으로는 성숙된 상태로 사회·문화적 수준에 따라 다양한 영향을 받으며 대학생들 동안 이성교제를 통해 손잡음, 키스, 포옹, 애무, 성경험(성관계) 등 성(sex)과 관련된 광범위한 행동을 하게 된다(1). 최근 여대생들의 성경험율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Kang, HY(1)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대생들의 19.3%가 성경험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Shin, KR 등(2)의 연구에서는 17.5%가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서 과거와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3).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미 일반화된 현상이라고 보고하고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다양한 대책마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4). 특히 우리나라의 대학 환경에서는 고등학교 시절까지 대학입시 준비에 이성에 대한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대학생에 되면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사회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되면서 이러한 성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를 실제로 성행동으로 옮기게 된다(5). 이성교제 경험은 친밀감 형성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지니지만 그러나 성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성교제를 하는 대학생들은 자신의 욕구와 이성적 통제간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불균형 상황에서 성을 경험할 수 있다(6). 대학생들의 성경험에 관한 Chae, GM과 Jung, MC의 연구에서 전체 연구 대상자들의 절반 이상이 피해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여대생들은 남자 대학생들과는 달리 성경험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임신, 더 나아가서 미혼모가 되는 경우를 비롯하여 유산, 성병 감염 등으로 남학생들보다 더욱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미혼모를 바라보는 관점이 부정적인 면이 많아서 여성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운다거나 오히려 성과 관련된 평가에 있어서 여성 개인의 행동 등을 비난하는 등으로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7,8). 이러한 사회·환경적인 분위기로 인해 성경험으로 인해 성 피해를 입은 여대생들은 인터넷이나 친한 친구들의 경험담 등을 통하여 얻은 지식으로 비밀리에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9). 이러한 대처방식은 미래의 바람직한 부모가 되는 인생의 시작

시점에서 커다란 상처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것은 개인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 우려된다.

Kim, MJ(9)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1.5%가 성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하였는데, 여대생의 성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문제를 살펴보면 최근 Shin, KR 등(2)의 대학생들 성경험 특성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임신을 한 대상자 중 94.4%가 임신중절을 하였으며, 이 중 17.5%가 중절 후 출혈, 요통, 복통, 빈혈 등 합병증을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해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Kim, SJ 등(10)의 연구에서는 시설 미혼모 중에서 20.4%가 대졸이거나 임신으로 인해 대학을 중퇴한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최근 성에 대한 허용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에 상응하는 많은 여대생들의 성경험의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Beck, CT(11)는 미혼모이거나 계획되지 않은 성경험으로 인해 원치 않는 출산을 하였을 때 우울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보고하였고 또한 원치 않는 임신의 임신중절은 신체적 고통 뿐 만 아니라 향후 정신적 문제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Park, G(12)의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성 피해 경험과 자살사고와의 관계를 규명하여서 정신적인 문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국외 연구에서도 Du Rocher Schudich T 등(13)이 829명을 대상으로 성 피해를 받은 대상자의 11%가 물질남용을 비롯한 자살 사고, 가정환경 악화 등을 포함한 정신장애를 앓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외에 성 피해에 관한 국내의 연구로는 Ha, N 등(14)이 성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우울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으며, Kim, JY(16)은 대학생 시기의 성태도가 결혼 후 부부간의 생활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적절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여대생들의 성경험은 미래의 부모가 될 대학생들에게 예비 부모로서의 가치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성경험의 특성을 살펴보면 Woo, GH(17)는 대학생의 첫 성경험 시기는 대학생 1~2학년이 가장 많았으며, 이성 교제 후 성관계는 2개월에 28.7%, 1개월에 25.7%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대학생의 첫 성관계는 '서로 합의하에'가 74.3%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성경험은

이성교제의 시작과 더불어 짧은 기간 안에 성 경험을 하고 있으며, 성관계에 대한 여대생들의 합의가 높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의 성 경험이 억제되던 시기와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성(sex)에 대하여 보수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해석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매우 발달한 국가로 인터넷을 포함한 대중매체에 의한 성적 상품이 범람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영향은 성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성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Whitebeck, L.B 등(18)은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지니면 일찍부터 성관계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여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태도 등을 중요한 변수로 보고하였으며, Son, JN(19)은 감각추구성향의 탈 억제, 충동성 등이 성경험에 유의한 변수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Kim EM 등(20)의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의 45.7%가 중학교시기에 음란물을 접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Son SR(21)은 담배와 술을 마시는 대학생들이 성경험이 높다고 하였으며, 성에 관한 지식이 많을수록 성경험이 높다고(22,23) 보고하고 있다. 그 외에 Hwang SW, Cho JY 등, Hoe TK 등의 연구에서는 피임의도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성경험율이 낮게 나타났다(24,25,26). 이와 같이 대학생의 성경험에 관한 연구는 성관계 경험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성경험과 음주, 흡연, 성지식, 성태도와 성행동의 관계(17,21,22,23), 대학생의 피임의도(24,25,26) 등 연구자들에 의해 객관적 자료 취득이 용이한 성경험자들의 특성과 성경험율의 관계가 연구되어져왔다. 특히 여대생들에게 있어서의 성경험은 솔직하게 대답하기엔 응답하기 예민한 부분이어서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대학생들의 성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내면을 살펴보기 위한 질적 연구가 2012년, Cho, SH와 Cho, AM(5)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이성교제와 성행동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로서 이 연구를 살펴보면 여대생들은 성관계에서 피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성관계 시 준비부족, 성감이 좋지 않음, 분위기가 깨질까봐 등의 이유로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 여대생 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써 일반화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 성경험에 관한 연구로는 일반

적인 대학생의 성경험 특성을 나타내기엔 성경험과의 단편적인 관련요인이거나 대상자의 범위가 국한되어 있어서 대학생들의 성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요인과 올바른 성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대생들의 성경험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다양한 건강문제를 동반하니 실태조사를 하고 그 예측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연구되어져 온 성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통합과 여대생들의 성경험 영향요인에 대한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많은 변수와 표본으로 실제적으로 성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 지역을 서울, 충청, 강원 세 지역으로 확대하여 기존 연구에서 적은 수의 표본으로 여대생들의 성경험 실태를 파악한 반면 본 연구는 많은 대상자수를 확보하고 여러 지역의 표본수로 여대생들의 성경험 실태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의 성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1,2,3,4,5,9,17,22,23) 통합 분석하여 영향요인의 타당도를 검증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여대생들의 성경험에 대한 다양한 지역과 많은 표본수를 가지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성경험의 예측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성경험을 방지하고, 여대생들에게 실질적인 성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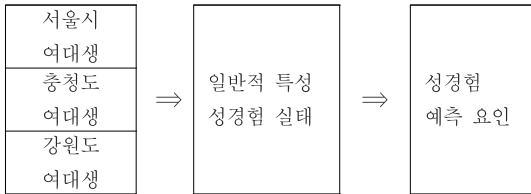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여대생들의 성경험의 영향요인들을 규명하여 여대생들의 성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국내 여대생들의 성경험 실태를 분석한다.
- 2) 그들의 성경험과 관련된 특성들을 분석한다.
- 3) 다변수분석을 통해 성경험의 예측 요인들을 확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서울시와 충청도, 강원도 소재 대학교 여대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그들의 성경험 실태를 알아보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여대생들의 성경험 예측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2개, 충청도 소재 2개, 강원도 소재 2개, 총 6개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로 하였다. 분석을 위한 표본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0.95로 계산하였을 때 134명이 산출되었다. 이 중 10~20% 탈락률을 고려하면 161명 정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320명을 편의표본추출방법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중 무응답자와 자료의 타당도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21명을 제외한 299명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므로 표본수가 충분히 확보되었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를 구하였고,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연구 시작 전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설문지는 본 연구자가 대학생의 성경험 관련 기존 논문의 성경험 영향요인을 통합 분석하여서 (1,2,3,4,5,9,17,22,23), 간호대학 교수 3인의 의견을 수합하여 구성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개인 관련 특성으로는 성경험 유무, 학년, 용돈, 학교 성적, 아르바이트 유무, 성병 감수성, 음주, 흡연, 운동을 포함하였고, 가족 및 사회 관련 특성으로는 귀가 시 집에 어머니의 유무, 친구의 성경험, 학교 지역, 거주 형태, 경제적 상태, 성교육 유무 등의 변수를 포함하였으며, 이는 구조화된 설문지는 정확성과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수집 전 단계에서 여학생 50명을 대상으로 2012년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예비조사(pilot study)를 실시 후 이해도, 문항의 적절성 배치 등을 간호대학 교수 3인과 사정하여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2012년 9월 1일부터 시작한 자료 수집은 9월 30일까지 수행되었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서울·충청도·강원도 소재 4년제 대학교 6개교를 임의 선정하여 각 대학 보건기관의 대학보건 간호사에게 연구자가 연구 목적과 설문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 진행 동의를 얻은 후에 대학보건 간호사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1인당 면접에 소요되는 시간은 20-30분 정도였다. 대상자에게는 자료수집 시 연구의 목적, 질문지의 내용 및 보상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수집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과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서면을 통해 동의를 구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성경험 유무는 카이제곱분석법으로, 대학생 성경험 유무 예측요인들 분석은 로지스틱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성과 성경험 분포

여대생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분포를 분석하였다 (Table 1). 총 299명 중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80명(60.2%)이었다. 학년 분포는 3학년이 98명(32.7%)으로 다소 많았고, 그 다음은 2학년 80명(26.8%), 1학년 61명(20.4%), 4학년 60명(20.1%)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한 달 용돈 정도는 10만원 이하를 소요하는 학생이 62.5% 정도이었으나 15만원 이상을 쓰는 학생도 약 18.4%가 되었다. 학교 성적은 중간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00명(33.7%)이었고 중간보다 높다고 응답한 학생이 54.6% 정도였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한 학생으로 74.8%로 많았고, 성병에 대한 감수성에 대해서는 성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209명(37%)이었다. 음주, 흡연, 운동과 같은 건강행위에 대한 설문

에서는 106명(35.5%)이었다. 음주, 흡연, 운동과 같은 건강행위에 대한 설문에서는 268명(89.6%)이 음주를 한다고 응답하였고, 58명(19.4%)이 흡연자였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학생이 180명(60.1%)이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경험유무를 분석한 결과, 거주형태($p=.057$)와 성교육 유무($p=.446$)에 따라서 성경험유무가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그 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귀가 시 어머니가 있는 경우($p=.016$), 친구의 성경험 유무($p=.000$)와 지역차이($p=.014$)에 따라서는 성경험 유무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 학년에 따른 성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1학년이 45.9%이고, 2학년이 48.8%, 3학년이 67.3%, 4학년이 78.3%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경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 흡연 유무에 있어서 비흡연자의 53.1%에 비해 흡연자가 89.7%로 유의하게 높은 성경험율을 보였다($p=.000$). 운동 정도에 있어서도 운동을 전혀 안하는 학생들의 58.3%가 성경험이 있다고 한 반면 일주일에 4회 이상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경우 성경험율이 90.9%로 운동 정도가 높아질수록 유의하게 높아짐을 알 수 있다($p=.014$).

여대생들의 가족과 사회적 요인에 따른 성경험 유무를 분석하였다(Table 2). 귀가 시 집에 어머니가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들의 성경험 유무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가 있는 학생들의 성경험은 55.3%인데 비해 어머니가 없는 학생들은 68.5%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6$). 친구가 성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에는 73.8%가 성경험을 한 데 비해, 그렇지 않은 학생은 22.4%만이 성경험을 했다고 응답하였다($p=.000$). 대학교가 속한 지역에 따라서도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4$). 대학이 서울에 있는 대학생의 47.6%가 성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한 반면, 지방 소재 여대생들은 62.9%를 보였다. 여대생들의 거주 형태($p=.093$), 경제상태($p=.057$), 성교육 유무($p=.446$)에 따라서는 성경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여대생들의 성경험 예측 요인 분석

여대생들의 성경험 예측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들을 분석 통합하여 성경험 예측 요인 변수들을 선택하였다. 특히 흡연은 성경험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Chio C와 Yi CC(27)의 연구와 Son, AR(21)의

연구를 참고하여 두 변수간의 관계에서의 유의성을 근거로 흡연을 선택하였다. 여대생들의 성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족 및 사회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성별, 학년, 흡연, 격렬한 운동 특성 등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족 및 사회적 특성 중에서는 귀가 시 어머니가 집에 있는지 여부, 친구의 성관계 유무, 대학의 지역 특성들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대생들의 성경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던 6개 변수들인 학년, 운동실태, 흡연여부, 귀가 시 어머니 유무, 친구의 성경험유무, 지역을 활용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조건부 전진 방법(Conditional forward method)으로 실시한 결과, 3개 변수인 학년, 흡연유무, 친구의 성경험유무만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경험이 1.38배씩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4$),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보다 흡연을 하는 학생의 성경험이 5.68배 많았다($p=.00$). 친구의 성경험유무도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친구가 성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에 5.3배 유의하게 많은 성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p=.00$)(Table 3).

IV. 논의

본 연구는 여대생의 특성상 솔직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성경험에 대한 연구로 적은수의 표본으로는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얻기 어려운 연구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연구에 비하여 많은 표본수와 많은 지역을 포함하여 여대생들의 성경험 실태와 성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시 소재 2개, 충청도 소재 2개, 강원도 소재 2개 총 6개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299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스스로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성경험 실태를 파악하고 일반적·사회적 특성을 기반으로 성경험의 예측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성경험 관련 다양한 요인들을 통합하여 분석에 포함하였고(1,2,3,4,5,9,17,22,23) 여러 지역의 여대생들을 표본으로 여대생들의 성경험 실태와 성경험 예측요인을 실

질적으로 파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총 299명 중 180명(60.2%)의 대상자들이 성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2007년, Kang, HY(1)의 연구 결과에서 19.3%가 성경험이 있고, 2010년, Shin, GR 등(2)의 연구결과에서 성경험이 17.5%로 나온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여대생들의 성경험율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과거 10년 동안 여학생의 성행동이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한 Grunseit, A 등(28)의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육체적·정신적 성숙은 사회 문화적인 수준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여성의 사회 참여 및 지위향상도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그간의 보수적이고 전통 사회에 머물러 있던 여성의 성에 관한 인식도 빠른 변화가 왔다고 보인다. 즉, 서구 사회에서 나타난 여성의 성 개방 조류가 우리나라에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hin, GR 등(29)의 연구에 의하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대학교에서는 성교육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어서 대학생들은 불건강하고 안전하지 않은 성경험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대생들의 60%가 넘는 학생들이 성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성경험에 대한 준비되지 않은 결과로 인해 특히 여대생들에게 있어서는 미혼 모를 비롯한 각종 성병 감염 등 심각한 성경험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심히 우려되어진다. 또한 이와 같은 성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후유증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9). 본 연구 결과, 성경험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국외에서 연구되어진 Trin SL 등(30)의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경험율이 증가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적으로 성경험은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더 이상 성경험을 예방하자는 교육보다는 성경험을 신체적으로 성숙한 대학생들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오히려 건강한 성경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성경험에 따른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성교육의 방향 제시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2002년도에 Lee, HS(31)가 일개 여자대학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대생들의 98.4%가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연

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대생들에게 적합한 성교육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2). 이와 같은 현실은 이제 대학에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여대생들의 성경험과 관련된 대학 환경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성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요구를 함께 고민해야 함을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경험율이 증가하는 것은 Woo, GH(17)가 대학생의 성경험이 이성 교제 후 1~2개월 이내에 50%가 넘는 학생들이 하고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연관을 지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이성교제 후 오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성경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험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요인 분석과 이제 더 이상 성경험을 예방하자는 차원이 아닌 안전한 성경험을 위한 초기 성교육 자료가 개발되어야 하겠다. 특히 여대생들은 남학생들과 달리 성경험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의 성교육이 초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체적·정신적 합병증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여대생에게 맞는 성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특성에 따른 성경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귀가 시 어머니가 있는 경우에 성경험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과의 관계 등이 성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외의 Rink E 등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32) 국내의 11~20세까지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경험 예측요인에서 함께 사는 부모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는 Kwon, HJ 등(3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가족은 주거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정서적 지지체계로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가 존재하며 묵시적인 규율이 존재하는 것으로 특히 귀가 시에 어머니의 존재는 여대생들에게 대화가 창구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학 중인 대학 소재에 따라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여대생들에게 이성교제가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 올 수 있다고 보인다. 여대생들에게 이성교제를 통하여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이 그들의 인지와는 다르게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Cho, SH와 Cho, AM(5)의 연구에서 보면 참여자들이 성관계에서 피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성관계시에 분위기가 깨질까봐 등의 이유로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였다. 즉 여대생

들은 피임을 하여야 한다고 인지는 하고 있으나 실제에서는 실행을 확고하게 하지 못 하는 것은 부모님이 안 계시는 지역에서 이성교제는 더 정서적 지지의 의미가 더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여대생들은 남학생들과 달리 성경험에 대한 의미를 정서적인 면에 많이 두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대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성교육은 여대생들의 감성을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친구의 성경험 유무가 강력하게 성경험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hio, C와 Yi CC(27)가 동료와 사회적으로 친밀한 사람의 성경험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며, Kim, MJ(34)의 연구에서 친구가 성적으로 활발하거나 또는 성관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때 성경험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이에 따라 성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친밀한 사람과 함께 받으며 상호작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Chun, NM(35)의 연구에서 여대생을 구조화된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성지식과 성적자율성에 대한 효과를 본 결과에서는 피상적인 성교육보다는 대상자들의 요구에 맞는 내용으로 친한 친구들과 함께 받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Christov-Moore L, et al.(36)는 감성은 여성에게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강조하였는데, 성교육이라는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는 성교육은 그들의 입장에서 마음을 읽어주는 감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2007~2013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STIs 예방을 위한 상담의 장단점에 관한 체계적인 리뷰를 한 최근 연구(37)에서는 성행동이 활발한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집중 상담을 한 결과 STIs를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상담을 포함한 성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Gursoy E, 등(38)은 대학교에서의 일반적인 행정관리로는 성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성관련 교육은 전문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국내의 Cho, SH·Cho, AM(5)의 성교육에 있어서 여대생들의 감성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와 매우 흡사한 결과이다. 이와 같이 효과적인 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성교육의 전문가가 집중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성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보다 흡연을 하는 학생의 성경험이 5.68배

나 많았는데, 이는 Han, SH 등(39)의 연구에서 흡연이 청소년들의 성 경험 시작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는 결과와 유사한데, 흡연이 모든 비행의 첫걸음으로 잘 알려져 있듯이 올바른 성경험을 위해서는 흡연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교 내에서의 성교육과 동시에 건강한 성경험에 악 영향을 미치는 금연정책을 교내에서 우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Garcua CM, 등(8)의 연구를 살펴보면 일대일 면접 연구결과 상담담을 위해 처음 찾아가는 사람은 대학교 내의 직원들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금까지 상담 전문가에게 우선 상담을 받으려 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에 따라 그는 연구결과를 통하여 대학교내의 건강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은 대학교 내의 광범위한 직원들과 함께 협동하여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들이 성 건강을 위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찾아가는 때는 대학생들이 상담하는 상담자들의 인격이나 그 외 상담자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판단과 상담자들이 대상자들과의 상호작용 기술에 따라 다르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40). 따라서 성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전문가적 인간관계 기술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최근 여대생들의 성경험이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따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건전한 이성교제는 친밀감 형성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지니지만 성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성교제는 위험한 면도 지니고 있다. 특히 여대생들은 남자 대학생들과는 달리 성경험을 통해서 임신의 가능성과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해 미혼모가 되는 경우를 비롯하여 유산, 성병 감염 등 남학생들보다 더욱 큰 성 피해를 입는다. 성 피해를 입은 여대생들은 인터넷이나 친한 친구들의 경험담 등 정확하지 않은 지식으로 비밀리에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으며, 이는 미래의 바람직한 부모가 되는 인생의 시작점에서 커다란 상처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성경험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경험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성교육의 기초자료를 제 공함과 동시에 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기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경험에 관한 연구로는 일개 지역의 연구대상자로 적은 표본 수이거나 오래전의 연구 결과이었다. 이에 따른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전문가들이 함께 분석 통합하여 성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택하였으며,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많은 표본 수를 확보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경험 분포와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충청·강원 지역의 4년제 6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299명이었으며 본 연구 결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들의 성경험은 총 299명 중 180명으로 60.2%이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경험유무를 분석한 결과, 귀가 시 어머니가 없는 경우, 친구의 성경험이 있는 경우, 서울보다는 지방소재 대학교의 여대생들이 성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경험 비율이 높았다. 또한 흡연하는 여대생들이 비흡연자에 비해 높은 성경험율을 나타냈으며 일주일에 4회 이상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경우 성경험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여대생들의 성경험 예측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경험이 1.38배씩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흡연을 하지 않는 여대생들보다 흡연을 하는 여대생들의 성경험이 5.68배 많았고, 친구가 성경험이 있는 경우 5.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상과 같이 여대생들의 성경험 예측 요인은 학년, 흡연유무, 친구의 성경험이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여대생들을 위한 성교육은 대학교에 입학 후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여대생들을 위한 맞춤형 성교육은 감성에 중점을 두어 프로그램화하여야 하며 동시에 적극적인 금연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여대생들을 위한 성교육은 적극적인 학교 정책으로 성교육 전문가가 교내 전체 직원들과의 협동을 통해 정착화해야 한다.

References

- [1] Kang HY.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knowledge, attitudes, behaviors and variables forecasting sexual intercourse of university [master's thesis]. [Seoul]: Sungkonghae University; 2007. 184 p.
- [2] Shin KR, Park, HJ, Bae, KE, Cha, CY. Sexual Behavior, Health Risk Behaviors Related to Reproductive Health, and Sexual Experience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0;22(6):624-633.
- [3] Jung GS. Perceptions of Sexuality in Unmarried Moth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08;15(2):229-239.
- [4] Morrison DM, Masters NT, Wells EA, Casey E, Beadnell B, Hoppe MJ. "He Enjoys Giving Her Pleasure": Diversity and Complexity in Young Men's Sexual Scripts. Arch Sex Behav. 2014;Oct 7.
- [5] Cho SH, Cho AM. A Hermeneutics Phenomenological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Dating and Sexu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2;19(5):137-160.
- [6] Jang SB, Yoo MS, Lee SK. Self-Assertiveness and Sexual Experience of Teenage Girls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1;7(3):305-316.
- [7] Chae GM, Jung MC. A Study about Sexual Attitudes and Victimization of Korea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004;9(4):869-886.
- [8] Park HM. The Barriers perceived by youngmothers when they return to their studies[master's thesis]. [Seoul]:Sookmyung Women University; 2014. 68p.
- [9] Kim MJ. Study of Child Abuse and Psycosocial injury in Female College Students[master's thesis]. [Seoul]: Ewha University;1997. 79 p.
- [10] Kim SJ, Yang SO, Jeong GH. Unmarried Mothers using Social Welfare Facilities. Korean

-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2004;10(4):468–478
- [11] Beck C, T. Predictors of postpartum depression: An update. *Nursing Research*. 2001; 50(5):275–285.
- [12] Park G. The Sexual assault victimization and suicide ideation: mediating effects of coping strategies, attributional style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Women Psychology*. 2006;11(3):327–334.
- [13] Du Rocher Schudich T, Youngstrom EA, Matinez M, Kogos Youngstrom J, Scovil K, Ross J, Feeny NC, Finding RL. Physical and Sexual Abuse and Early-Onset Bipolar Disorder in Youths Receiving Outpatient Services: Frequent, but Not Specific. *J Abnorm Child Psychol*. 2014;Aug. 15.
- [14] Ha N, Bae SM, Hyun MH. The Mediating Effects of Forgiv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hame and Depression in Survivors of Sexual Abus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1;16(4):725–737.
- [15] Jang JS, Park G.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abuse, Sexual cognition and Mental health in College students. *Seoul Female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6;6(2):61–80.
- [16] Kim JY. The Analysis of sexual attitude and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by Communication Style[master’s thesis].[Seoul]: Sookmyong University; 2005. 89p.
- [17] Woo GH.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univetsity students[master’s thesis].[Kongju]:Kongju University; 2011. 51p.
- [18] Whitebeck, L.B., Yoder, K.A., Hoyt, D.R., & Conger, R. D. Early adolescent sexual activity: A development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99;61(4), 934–947.
- [19] Son JN. Risk Factors for Sexual Behaviors in Girl’s High School Students. *J Koran Acad Nurs*. 2004;34(3):430–439.
- [20] Kim EM, Yu, SJ, Song, MR. Correlation between History of Exposure to Obscene Material, Sexual Attitudes and Intercourse Exper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3;20(1):123–138.
- [21] Son AR, The Relationship with Tobacco use, Alcohol Consumption an Sexual Behavior among Adolescents in Seoul City. *Korea Society of Alcohol Science*. 2010;11(1):77–87.
- [22] Kim YG.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Sexual Double Standard, Sexual Subjectivity, Sexual Meaning on their Sexual Behavior. *Forum for Youth Culture*. 2011;27:8–37.
- [23] Ho SM.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Hanyang University; 2009. 80 p.
- [24] Hwang SW, Jeong JW. A Study about Compare of Self-Efficacy, Contraception Intent and Behavior in the Unmarried Intercourse Experience People.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Conference*. 2008;10:133.
- [25] Cho JY, Han SH, Song MS. Personality-based Contraception Behavior of Femal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6;12(4):338–347.
- [26] Hue TK, Cho JE. Condom negotiation stratiefies of Korean college students: Interactive perspective of Sexual-risk behavior. *Korean Psychology Association*. 2007;13(1):41–61.
- [27] Chio C, Yi CC. Adolescent premarital sex and health outcomes among Taiwanese youth: perception of best friends’ sexual behavior and the contextual effect. *AIDS Care*. 2011;23(9), 1083–1092.
- [28] Grunseit A,Richters J., Crawford J., Song A., Kippax S. Stability and change in sexual practices among first-year Australian university students(1990–1999).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005;34(5), 557–568.
- [29] Ahn SH, Park IS, Han JS, Kim TI, Gwak MS, Jeong HS. Health Behaviors, Reproductive Health History, and Sexual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 Nursing. 2008;14(3):205-212.
- [30] Trin, SL, Ward LM, Dav K, Thomas K, Levin D. Contributions of divergent peer and parent sexual messages to 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 sexual behavior. *J Sex Res.* 2013;51(2), 208-220.
- [31] Lee HS.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Experience in Sex and the Needs of Sex Education of One Women's Colleg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2;8(1):131-144.
- [32] Rink, E., Tricker, R., Harvey, S.M. Onset of sexual intercourse among female adolescents: The influence of perceptions, depression, and ecological factor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007;41, 398-406.
- [33] Kwon HJ, Kim KH, Choi MH, Kim Hy. A Study on the Variables Forecasting Female Adolescents' Sexual Intercourse. *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006;15(2):170-178.
- [34] Kim MJ. Focused on the Peer Group's Sexual Experiences, Social and Coping=A Study on the Factors Causing Female Adolescent Sexual Activit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003;41(6):63-74.
- [35] Chun NM. Effect of Sexual Education Program on Female College Student's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utonomy.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2;18(2):108-116.
- [36] Christov-Moore L, Simpson EA, Coude G, Grigaityte K, Iacoboni M, Ferrari PF(2014). Empathy: Gender effects in brain and behavior. *Neurosci Biobehav Rev.* 16(pii): S0149-7634(14)00216-4, doi:10.1016.
- [37] O'Connor EA, Lin JS, Burda BU, Henderson JT, Walsh ES, Whitlock EP(2014). Behavioral Sexual Risk-Reduction Counseling in Primary Care to Prevent Sexuality Transmitted Infections: An Undated Systematic Evidence Review for the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Ann Intern Med.* 23. doi: 10.7326/M14-0475.
- [38] Gursoy E, McCool WF, Sahinoglu S, Yavuz Genc Y(2014). Views of Women's Sexuality and Violence Against Women in Turkey: A Cross-Sectional Investig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J Transcult Nurs.* Sep 15, pii: 1043659614550485.
- [39] Han SH, Kim JJ, Choe MJ. Effected Factors on the Initiation of Sexual Activity among Korean Young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Statistics.* 2002;27(1):21-36.
- [40] Garcia CM, Lechner KE, Frerich EA, Lust KA, Eisenberg ME(2014). College students' preferences for health care providers when accessing sexual health resources. *Public Health Nurs.* Sep;31(5). 387-94. doi:10.1111/phn.12121.

※ 본 논문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표 1. 개인적 특성에 따른 성경험

Table1. Sexual experience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Sexual Experiences		Total	$\chi^2(p)$
		Yes N(%)	No N(%)		
Grade	1st	28(45.9)	33(54.1)	61(20.4)	19.91(.000)*
	2nd	39(48.8)	41(51.3)	80(26.8)	
	3rd	66(67.3)	32(32.7)	98(32.7)	
	4th	47(78.3)	13(21.7)	60(20.1)	
Allowance	Under 50,000	22(47.8)	24(52.2)	46(15.4)	5.89(.117)
	Under 100,000	83(58.9)	58(41.1)	141(47.1)	
	Under 150,000	36(63.2)	21(36.8)	57(19.1)	
	More 150,000	39(70.9)	16(29.1)	55(18.4)	
Academic Grades	Low	2(50.0)	2(50.0)	4(1.3)	3.90(.419)
	Lower Middle	23(74.2)	8(25.8)	31(10.4)	
	Middle	55(55.0)	45(45.0)	100(33.7)	
	Upper Middle	73(61.3)	46(38.7)	119(40.1)	
	Upper	26(60.5)	17(39.5)	43(14.5)	
Part time job	Yes	131(58.7)	92(41.3)	223(74.8)	.646(.253)
	No	48(64.0)	27(36.0)	75(25.2)	
STD Sensitivity	Never	19(54.3)	16(45.7)	35(11.7)	6.52(.164)
	Hardly Ever	28(56.0)	22(44.0)	50(16.7)	
	Usually	59(54.6)	49(45.4)	108(36.1)	
	Little bit	55(68.8)	25(31.3)	80(26.8)	
	Mostly	19(73.1)	7(26.9)	26(8.7)	
Drinking	Yes	165(61.6)	103(38.4)	268(89.6)	2.02(.111)
	No	15(48.4)	16(51.6)	31(10.4)	
Smoking	Yes	52(89.7)	6(10.3)	58(19.4)	26.01(.000)*
	No	128(53.1)	113(46.9)	241(80.6)	
Vigorous Exercise	None	105(58.3)	75(41.7)	180(60.1)	12.48(.014)*
	1 per week	24(49.0)	25(51.0)	49(16.4)	
	2 per week	25(67.6)	12(32.4)	37(12.4)	
	4 per week	20(90.9)	2(9.1)	22(7.4)	
	More than 5 per week	6(54.5)	5(45.5)	11(3.7)	

* Missing values were excluded * $p < 0.05$

표 2. 가족과 사회적 특성에 따른 성경험

Table 2. Sexual experience according to family and soci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Sexual experiences		Total	$\chi^2(p)$
		Yes N(%)	No N(%)		
Mother is existed when students get back home	Yes	105(55.3)	85(44.7)	190(63.8)	5.04(.016)*
	No	74(68.5)	34(31.5)	108(36.2)	
Friend's Sexual experience	Yes	163(73.8)	58(26.2)	221(74.4)	62.54(.000)*
	No	17(22.4)	59(77.6)	76(25.6)	
Region	Near Seoul	40(47.6)	44(52.4)	84(33.1)	5.41(.014)*
	Provinces	107(62.9)	63(37.1)	170(66.9)	
Living Patterns	With Family	83(56.1)	85(43.9)	148(49.5)	2.07(.093)
	Others	97(64.2)	54(35.8)	151(50.5)	
Economic Conditions	Low	5(6.2)	3(3.7)	8(2.7)	9.17(.057)
	Lower Middle	22(50.0)	22(50.0)	44(14.7)	
	Middle	94(56.6)	72(43.4)	166(55.5)	
	Upper Middle	56(71.8)	22(28.2)	78(26.1)	
	Upper	3(100.0)	0(0)	3(1.0)	
Sexual Education	Yes	28(58.3)	20(41.7)	48(16.1)	.08(.446)
	No	152(60.6)	99(39.4)	251(83.9)	

* Missing values were excluded. * $p < 0.05$

표 3. 성경험 관련 요인

Table 3. Factors associated with sexual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Variables (Baseline)	OR	95% C.I.	p
Grade (1st)	1.38	(1.02 - 1.87)	.04
Smoking (No)	5.68	(2.21 - 14.59)	.00
Friend's Sexual experience (No)	5.3	(2.73 - 10.3)	.00

Cox & Snell R square = .218, Nagelkerke R square = .293